

## 텔레포트

광섬유 통신망 갖춘 정보통신 네트워크  
새로운 산업 창출하는 뉴비즈니스 공간

모든 교역과 왕래의 중심지인 항구도 시대와 더불어 변한다. 국가간의 교역과 이동이 시작된 이래 물품을 실어내고 들이는 역할을 하던 시포트(sea port)에서 그후 항공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에어포트(air port)가 중요하게 부각되었고 오늘날에는 정보통신기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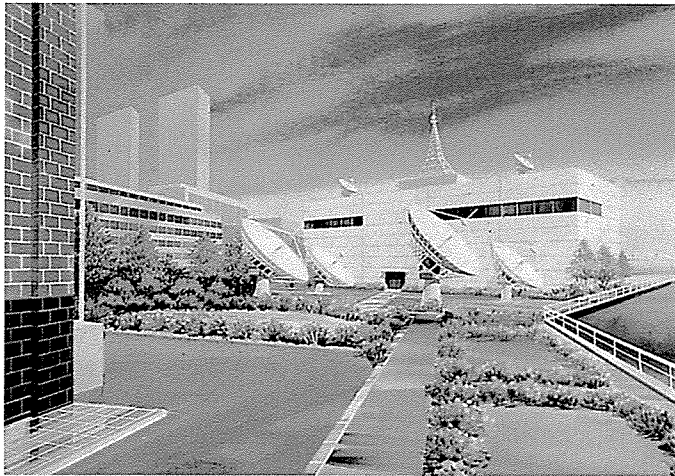
눈부신 발전에 따라 정보의 송신과 수신기능을 가진 텔레포트(tele port)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국제적인 전화·전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른 것으로서 정보사회를 상징하는 심볼타워라고 할 수 있는 텔레포트는 좁은 의미로는 인공위성에 대한 송수신시설을 가리키나 넓은 의미로는 위성안테나(palabola antenna)가 숲을 이루는 단순한 지구

국 기능뿐 아니라 그 기반구조로 광섬유 통신망을 갖추어 국제·국내의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거점으로서 출입구의 기능을 하면서 거기에서 정보가 창조되고 발사되어 도시기능의 핵심기지 역할을 한다.

텔레포트의 주요 사용자는 금융 관련 업종에서 자료처리 업무, 화상방송 송수신국, 화상회의, 기업의 통신센터 등 소프트웨어산업 및 정보서비스 유관업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인텔리전트 빌딩(intelligent buiding)이 뽀뽀히 들어 선 오피스센터로서 21세기 도시의 리딩 존(주도 지구)이 될 것이다. 24시간형 국제 정보도시를 형성하기 위하여 정보 기능과 국제 교역 기능 등 여러가지 기능을 장비한 코어가 필



◇텔레포트의 핵심인 위성통신지구국과 팔라보라 안테나의 숲.

요하게 되고, 이것은 텔레포트로부터 창출되는 것이다.

세계 최초의 텔레포트는 미국의 스테이튼 텔레포트로서 그 연결망은 뉴욕·뉴저지·프린스턴까지 포괄하고 있다. 이렇듯 뉴욕의 배터리 파크, 런던의 도크랜드, 일본 요코하마의 미나토 미라이 21(MM21), 오사카의 테크노포트, 동경만 임해부 부도심 지구 등 세계각지에서 텔레포트가 건설되어 도시의 중

심부로 자리잡고 있다. 21세기 고도정보사회에서 온갖 정보가 도시로 직결되는 항구가 텔레포트인 것이다.

실제 텔레포트를 건설하는데 고려할 사항은 전파나 초단파의 송수신에 장애가 없는 곳으로, 장단기 예비전력이 지원되어야 하며 부지 선정시에는 지반의 안정성을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 또 종합계획을 위해서는 0.4km<sup>2</sup> 이상의 면적이 필요하며 초단파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방재 기술의 발전도 필요하다. 오늘날 텔레포트는 초기의 위성통신 기능과 아울러 광섬유망을 이용한 집약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아직은 위성 송수신이 주기능이다. 결국 텔레포트의 개발은 21세기의 주요 통신 수단으로 인공위성이 기능하는 한 정보의 입출력의 거점으로 작용하게 되어 국토 이용에 큰 변화 요인이 되고 있다.

반면 이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있는데 최근 광섬유의 발달로 도시에 텔레포트 근접의 필요성이 사라지고 결국 텔레포트를 위한 부동산 개발이 불필

요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향후 10여년간은 위성통신이 통신의 주요 수단으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보 결정점으로서 텔레포트의 영향력은 클 것이다.

온세계의 정보와 사람이 모이는 텔레포트는 21세기의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뉴비즈니스 공간으로 국토의 모든 지역을 지구적 확산성을 지닌 지구 도시로 변모시켜 나갈 것이다. **ST**